

보도시점 2024. 6. 19.(수) 11:00
< 6.20.(목) 조간 >

배포 2024. 6. 19.(수)

산업계 중심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강화

-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금년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활용하여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한편, 특성화대학원과 같이 산학프로젝트 중심의 국내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6.19.(수)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강동진 공학교육혁신협회장, 홍성주 반도체 아카데미 원장을 비롯하여 특성화대학원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재양성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작년보다 8.3% 증가한 2024년도 인력양성 예산 3,513억 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산학협력 해외연계 프로젝트 등의 첨단산업 특화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창 (043-203-4225)

참고1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6.19.(수) 16:00~17:00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1차관, 산업정책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 혁신협의회, 반도체아카데미, 특성화대학원 등 관계자
- 논의안건: ❶ 국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❷ 향후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산업계, 학계, 정부의 역할

< 상세계획(안) >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3 (3')	■ 1차관 모두발언	
14:03 ~ 14:08 (5')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 현황 및 계획	산업일자리혁신과장
14:08 ~ 15:00 (52')	■ 참석자 토론	각 7분 내외

□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이 름	소속	직위	비고
1	김 우 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2	강 동 진	공학교육혁신협의회	회장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3	홍 성 주	반도체 아카데미	원장	
4	공 정 택	성균관대학교	교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반도체 특성화대학)
5	서 영 주	포스텍 정보통신대학원	원장	컴퓨터공학과 교수
6	조 혜 경	한성대학교	교수	AI응용학과
7	민 병 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24년 인력양성 사업 예산은 23년 대비 8.3% 증가한 3,513억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예산 50% 증액 * ('23) 737.9억원 → ('24) 1,106.5억원

1 첨단분야 특화 인력양성 지원

- 첨단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산학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대학원 등 고급인재 양성사업 확대

* 특성화대학원: ('23) 반도체 3개 → ('24) 반도체배터리 각 3개, 디플바이오 각 1개 등 8개 추가

- 기존 산학협력 과정은 첨단산업 현장지식의 체계적 교육에 한계 →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 공동으로 전용 교육시스템 마련

* 강사·장비 확보 애로, 과정설계의 분절성, 사업의 연속성 등 산학협력 한계 극복

* 반도체 아카데미 : 차세대 반도체 설계전문가 등 5년간 3,600명 이상 배출 목표

2 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기반조성

* 첨단산업 특성상 기존 교육만으로는 적기 인재양성에 한계 →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산업계의 역할 확대 필요

- 기반조성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24.1월 공포, '25.1월 시행)

* 업계가 직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사내대학원, 기업인재개발 기관, 업종별아카데미, 교육과정 참여, 장비·시설 개방 등

- 기업 주도 교육 : 사내대학원(예: LG AI대학원), 산업계 공통기술 전문교육(예: 삼성 SSAFY) 등 확산 추진 예정

3 해외인재 유치

- 첨단산업 분야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개선, 정주지원 등의 방안 검토, 해외인재유치 홍보, 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마련